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광주 서구 #자산취득비 지원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 자라고 이루어지는 꿈터

이는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의 의미입니다.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은 광주광역시 기아자동차 스포츠문화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회사 공동으로 지역과의 나눔 및 노사연대의 취지로 설립했습니다. 지역민과 일상을 함께하며 책문화활동을 공유하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통의 매개체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도서대여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인문학, 역사탐방 등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민화교실, 독서동아리 등의 성인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2017년 기아꿈터의 목표는 ‘도서관 적극 알리기’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도서관 이사를 하면서, 공사기간 8개월을 휴관하게 되었습니다. 재개관 후 도서관을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도서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원들도 많고, 시민 개방공간에 위치해 있음에도 도서관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기아꿈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보고자, 이를 2017년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지원119를 통해 구입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착, 비치해서 활용했구요. 이는 도서관 홍보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은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했던 한 해였습니다. 긴급지원119를 통해 빔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수업에 다양한 영상 활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운영에 필요한 봉사자의 손길도 더욱 절실해져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 중입니다. 무엇보다 방학 중인 요즘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도 증가하고 자원봉사자도 적극 발굴하고 후원회원도 확장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 방문하는 이용자들께서도 기아꿈터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신간을 문의하거나, 방학이 시작된 이후로는 학교 추천도서 목록에 대한 장서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은 이야기가 많은 도서관입니다. 기존 독서동아리를 다시 정비해서 ‘무리하지 않는’, ‘의도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느슨한 책임기를 하자고 오픈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2시부터 시작한 모임이 5시를 넘기더니 7시를 넘은 적도 많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까지 계속 함께하고 싶지만 외부에 나가야해서 어쩔 수 없이 도서관 열쇠를 주고 퇴근할 때도 있었답니다.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 있느라 허리를 두들겨가며 이어가는 이야기에 이번 주는 9시 반이 넘어서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습니다. 2017년은 웃느라 눈물 흘리며 데굴데굴 구른 적도 있고, 안쓰럽기도 하고, 몽클하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이용자의 동선을 잘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한 후로 새로운 공간에서 이용자의 동선을 잘 바라보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재배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잘 해내고자 합니다. 초기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을 찾은 회원들과 책으로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이어내어 평생 독자가 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조합과 시민 각각의 욕구와 이해와 협력을 아우르는 소통과 상생의 장소가 되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늘 활동가 선생님들 보면서 방향을 찾고 힘을 얻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지나온 시간이 분명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해가 더해 갈수록 도서관 일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네요. 전부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